

- 따라서 본 사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양돈 농가 인근(300 미터 이내) 농작물 재배환경에서 유래되는 식중독균 오염 및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2012년 기준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이 46.5백만 톤이며 이 가운데 닭 분뇨가 656만 톤을 차지하고 있음. 닭 분뇨는 80% 이상이 거름으로 재순환 사용되고 있지만, 육류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분리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율도 높으므로 닭 분변을 완전히 발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퇴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신선채소류 등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될 확률이 높으므로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양계 농가 인근 (300 미터 이내) 농작물 재배환경에서 유래되는 오염 식중독균 및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FTA 대응 신선채소류의 안전관리 방안을 본 사업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업 현장의 품질 및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구축” 등 환경 보전 관련 기술과 더불어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체계화된 농업환경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2010년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제역 발생하였고 당시 3,500여 톤의 소독약이 2011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살포되었는데, 이 중에는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 글루타르알데히드 63 톤, 포름알데히드 4.8 톤이 포함되어있어 구제역 발생 지역 인근 신선채소류 재배지의 환경오염과 토양 미생물 등의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사업에서는 구제역 발생 전과 발생 후의 신선 채소류 분리 식중독균과 내성균의 패턴을 비교하여 향후 구제역 재발생 시의 정책제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구제역 매몰지와 주변 농가와의 항생제 내성균 분포와 관련성 분석을 통한 적합 매몰지 선정과 농경지 선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의 경우 2009~2013년 원인 식품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수를 보면 절임 채소류, 생채소 및 과일, 익힌 채소류에 의한 식중독이 52건으로 어패류에 이어 식중독 원인 식품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2014). 세척 후 바로 섭취하는 셀러드 채소류 (Ready to Eat, RTE)에서 식중독균을 넘어 항생제 내성균 검출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국민 건강의 직접적 위협 요인으로 극도의 국민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며 농산물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므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본 연구가 필요함
- 한편, 본 연구 과제 책임자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2011년 수도권 H지역 B농장에서 채취한 신선 채소에서 전염성이 강하고 높은 치사율을 야기하는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